[the300]  
  
  
  
  
  
  
  
미즈시마 고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가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대처하려면 한일 양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1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대사의 후임으로 내정됐고 지난달 9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임명됐다.미즈시마 대사는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처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해 이후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일한관계는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 주한(일본)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점에 대해선 "그 기회를 활용해 (한일관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부임을 축하하고 있다. / 사진=외교부미즈시마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김홍균 1차관에게 대사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은 외교사절 파견을 정식으로 통지하기 위해 파견국 국가원수가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보내는 외교문서다.김 차관은 이날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미즈시마 대사는 1985년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그해 일본 외무성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주미대사관 참사관, 북미국 북미2과장 등 대미(對美)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한국과 인연도 있다. 미즈시마 대사는 2017년부터 2년 간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총괄공사를 맡기도 했다. 당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여파로 한일관계가 악화돼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후 일본 외무성 영사국장을 거쳐 2021년부터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다. 특히 지난해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을 이송할 때 일본인 귀국을 지원하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